

하나된 광주체육 '진일보'...제주에서 새 역사 쓰자

광주시체육회, 제106회 부산 전국체전 광주선수단 해단식

女양궁 3관왕 오예진·레슬링 2관왕 이재혁 '최우수 선수상' 수상
엄길훈 광주체고 교장·김종채 조대여고 교장 '특별 공로상' 받아
광주일고 '최우수 단체상'...박종규 광주시당구연맹 회장 감사패

제106회 부산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11위를 달성한 영광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광주시체육회는 25일 오후 2시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체전 참가 선수단, 종목별 회장 전무이사, 감독 코치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제106회 부산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는 총점 3만2천63점을 획득하며 종합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423점 증가한 성적으로 광주체육은 5년 연속 3만1천점 이상을 달성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종합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시공도협회(회장 장원주)와 광주시에어로빅협회(회장 이길훈)가 우수 단체상을 받았다.

전국체전 야구 U-18에서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광주제일고(교장 이규연)는 최우수 단체상을, 그 지도력을 인정받은

조운재 감독과 복싱 4연패 대기록의 한영훈을 지도한 신명훈 감독(광주 동구청)은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다.

제77회 전국체전(1996년) 이후 29년 만에 농구 우승을 차지한 수피아여고 김병희 지도자와 배드민턴 개인 복식과 단체 준우승을 이뤄낸 김동현(조선대) 지도자는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최우수 선수상은 양궁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3관왕을 달성한 오예진(광주여대 4)과 레슬링 2개 종목(그레코로만형, 자유형)을 제패하며 2관왕을 차지한 이재혁(광주체고 3)이 차지했다.

대회 4연패를 달성한 복싱 한영훈(광주 동구청)과 3연패를 달성한 역도 손현호(광주시청), 조정 김지선, 노효림, 배지영, 천지민(광주체고), 육상 1,600m 계주의 고승환, 김명하, 모일환, 이재성(광주시청)은 연패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한국수니어신기록을 경신한 편수영



25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선수단 해단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하나된 힘'으로 종합 11위를 달성한 영광의 주역들이 내년 제주 전국체전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신재이(광주체고 1)와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사격 김도훈(한국체대 2), 역도 손현호, 광주시청 육상팀(혼성 1,600m 계주)은 신기록상을 수상했다.

특별공로상은 메달 4개(금15, 은15, 동14)를 획득하며 광주선수단의 활약에 앞장선 엄길훈 광주체고 교장과 1989년 핸드볼부 창단 이래 첫

우승에 도전했으나 연장 승부 끝에 준우승을 차지한 김종채 조대여고 교장이 선전패 상을 받았다.

또 '광주 세계 3구선 당구 월드컵'을 개최해 광주에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 공간을 선사하며 전국체전에서도 선전한 박종규 광주시당구연맹 회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제106회 전국체전 종합 11위라는 성과는 선수, 지도자, 학교장(기관장) 등 모두가 하나돼 이룬 값진 결과물"이라며 "내년에도 모두가 한 단계를 성장해 제107회 제주 전국체전에서 광주체육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조용한 스토브리그...이유 있는 '속도 조절'



스토브리그가 한창이지만, KIA는 유독 조용하다. 좌완 볼펜 이준영이 첫 재계약 선수로 발표된 뒤

로 추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다른 구단들의 빠른 움직임과 비교하면 확실히 속도가 느린 편이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KIA가 이번 오프시즌에 마주한 FA는 성격 자체가 서로 다르다. 계약 규모가 큰 선수도 있고, 성과 옵션·보장 조건 등 세부 조율이 많은 선수도 있다.

여기에 리그 최다인 6명의 FA가 한꺼번에 걸리며 협상 난도까지 높아졌다. 예산과 일정 모두에서 지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제한된 예산의 특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KIA 구단은 이미 오프시즌 예산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예산은 큰 틀에서 이미 정해져 있지만,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선수 요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 다만 그 조정 폭은 현실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특정 계약을 크게 늘리면, 나머지 협상은 물론 향후 연봉 조정, 아시아 쿼터, 외국인 구성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KIA는 전체 균형을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반의 이탈도 협상 속도 조절에 영향을 줬다. 박찬호와 한재혁의 이적은 KIA의 일정표를 완전히 다시 짜게 만들었다.

특히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공백은 내야 보완이라는 큰 과제를 낳았다. 전력 보강 방향과 보상선수 선정 일정까지 겹치면서 구단으로선 처리해야 할 사안이 더 늘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FA 협상만 빠르게 끌어올리기보다 단계와 순서를 나눠 잡았다.

리그 최다 내부 FA 6명...서로 다른 조건이 만든 협상 난도 '1' 제한된 예산·시장상황 변수...최형우·양현종 거취 팬심 집중



올 시즌 내부 FA의 핵심으로 떠오른 양현종과 최형우 거취를 놓고 KIA 구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협상 속도가 구단 사정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선수와 에이전시 역시 시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 다른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신의 시장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흐름은 KIA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FA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결론은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차근차근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KIA의 행보를 보면 굵직한 사안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과제부터 정리하려는 분위기다.

26일 보상선수 사안이 마무리되면, 뒤이어 남아 있는 3개의 협상 테이블도 순서대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주홍철 기자

특히 최형우와 양현종의 거취는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두 선수는 팀 전력의 핵심을 넘어 상징성을 지닌 인물들이다.

팬들의 시선도 이 두 선수에 가장 집중돼 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왜 아직도 두 선수를 안 잡고 있나", "이러다 최형우마저 놓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섞인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KIA의 선택은 곧 팬심의 온도계가 된다.

구단의 고민은 깊지만, 결정은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남은 선택은 단순한 재계약을 넘어 내년 전력의 방향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 결론이 KIA의 겨울을 조용하게 만들지, 혹은 더 분주하게 만들지는 이제 곧 드러난다.

/주홍철 기자

SF 이정후, 일구회 '특별공로상'

오승환 '일구대상'·송성문 '최고타자상'·원태인 '최고투수상' 선정

은퇴 프로야구 선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가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2025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일구회는 25일 수상자를 모두 공개했다.

이정후는 특별공로상, 박찬형(롯데 자이언츠)은 의지노력상, 김정준 LG 트윈스 수석코치는 프로야구 지도자상, 전광열 경남고 감독

은 아마야구 지도자상을 받는다.

권영철 KBO 심판위원은 심판상, 삼성 라이온즈 마케팅팀은 프랜차이즈 수상자로 뽑혔다.

일구회는 이미 일구대상 오승환, 최고투수상 원태인(이상 삼성), 최고타자상 송성문(키움 히어로즈), 신인상 안현민(KT wiz) 등 주요 수상자를 발표했다.

일구상 시상식은 12월8일 열린다.

/연합뉴스

KIA, 영아일시보호소에 사랑의 기금 전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펼쳤다.

KIA는 25일 광주 동구 소태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광주 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사랑의 기금'을 전달했다.

포수 김태군이 밝은안과2병원 김근오 원장과 함께 영아일시보호소를 방문해 직접 기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사랑의 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태군은 "선수단에서 십시일반 모은 기금을 이렇게 뜻 깊은 곳에 쓸 수 있어 뿌듯하다"며 "팬들께서 한 시즌 동안 보내주신 주신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선수단 모두가 선행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2025시즌 동안 김도현, 양현종, 김태군, 최지민, 나성범, 이준영 등이



수상한 밝은안과2병원 월간MVP 상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다. /주홍철 기자

전남 장애인 볼링 이찬미, 데플림픽 볼링 여자단체전 '銀 합작'



2025 하계 데플림픽에 출전한 이찬미(전남장애인볼링협회·한전KPS)가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다. 앞서 열린 볼링 여자 2인조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찬미는 지난 24일 도쿄 히가시야마토 그랜드볼에서 열린 볼링 여자 4인조 단체전에 허선실(경남장애인볼링협회), 안형숙(강원장애인볼링협회), 박선옥(경기도장애인볼링협회)과 팀을 이뤄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독일을 매치 스코어 2-1(160-161 190-157 176-157)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대만에 0-2(154-173 148-211)로 패했다. 사진은 시상식 후 기념촬영하는 박선옥, 안형숙, 허선실, 이찬미(왼쪽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코리아컵 우승 격돌



대한축구협회, 26일 오후 7시부터 입장권 판매

대한축구협회는 2025 하나는행 코리아컵 결승전 입장권을 오는 26일 오후 7시부터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리아컵 결승전은 12월6일 오후 1시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광주FC의 단판 대결로 열린다.

입장권은 'PlayKFA'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26일 오후 7시부터 예매가 시작되고, 1개 계정당 최대 10매까지 살 수 있다.

온라인 판매로 입장권이 매진되지 않으면 경기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현장 판매한다. /연합뉴스